

2019 SK주식회사 주주서한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먼저, SK주식회사에 대한 주주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지와 신뢰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는 기 구축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관리하는 전통적인 지주사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rebalancing 활동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전체 가치를 극대화 해나가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의 각 사업회사가 자신들의 영역에서 기업가치를 성장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겠으나, 여기에만 의존해서는 데이터혁명, Digitization, 컨버전스 등으로 정의되는 최근 거시 환경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성장의 진정한 기회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있거나, 상호 보완적인 사업체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영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당사는 다른 지주회사와 차별화된 성장성과, 일반 투자회사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시현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지난 3년간 연평균 39%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과를 동력으로 같은 기간 전체 NAV는 연평균 20%씩 성장해 왔습니다.

중점 투자영역으로서 당사는 바이오, 반도체소재, 신에너지 영역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value-up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영역에서 당사가 투자한 Ampac Fine Chemicals, SK실트론, Kinestral Technologies 등의 기업들은 자체적인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도 포트폴리오의 전체 가치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텔레콤, 정유화학, 반도체 등 글로벌 Top 수준으로 성장한 기존 사업에서의 노하우와 talento를 투자대상 기업 선정과, 인수 후 value-up 과정에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통해 그룹의 차세대 주력사업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더해,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고 당사 사업과 시너지가 있어 향후 주력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seeding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영역이 이에 해당되는데, 현재는 당사와 계열사들 각자가 보유한 역량에 기반해서 관련 사업을 육성 중에 있지만, 향후 사업기회들이 구체화 되는 시점에는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발휘하여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플레이어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성장을 이미 시현했거나 그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른 영역은 적기에 투자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다음 성장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선순환적 투자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고차 거래와 증권사업 등을 매각하여 그 수익의 일부는 주주에게 환원하고 나머지는 성장 투자 재원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이에 해당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8년 성과

‘18년에는 포트폴리오의 체질 강화를 위한 신규 투자와 divest 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투자 영역에서 실적 성장과 의미 있는 사업성과들을 시현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 영역에서는 바이오팜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출시 신청을 미국 FDA에 제출하면서 상용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CDMO 영역에서는 작년 3분기에 미국 AMPAC Fine Chemicals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로서 SK바이오텍의 대덕, 세종 공장과 '17년 인수한 아일랜드 공장을 더해 제약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글로벌 선두 CDMO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은 '17년 대비 매출이 45%, 영업이익이 183% 성장하는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17년 당사가 인수한 이후 debottlenecking같이 긴요하나 정체되었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SK실트론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왔습니다. SK하이닉스, SK머티리얼즈, SKC 등 다른 계열사들과 반도체 소재 산업 트렌드에 대한 insight를 공유하면서 전략의 효율성과 적시성이 향상된 것 또한 SK실트론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에너지 영역에서는 미국 최대 유전 지역인 Permian Basin내 Brazos Midstream Holdings사에 투자하면서 '17년 Eureka Midstream Holdings 투자에 이어 G&P 영역에서의 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향후 double digit 수준의 성장을 상당기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목표한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19년 계획 및 전망

올해는 거시경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영 및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성장영역에서는 성장이 현실화,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높은 수준의 성장과 수익성의 개선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서는 세노바메이트의 상업화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고, 올해 체결한 유럽지역 L/O와 얼마 전 미 FDA의 NDA 심사를 통과한 기면증약의 L/O 계약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CDMO 사업에서는 SK바이오텍과 Ampac이 각각 신규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상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두 자리 수 이상의 매출과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실트론 관련해서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도체 업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웨이퍼 사업의 생산량 증대와 판매가격 유지를 통해 2019년에도 견조한 외형 성장 및 수익 증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현재 상당한 물량이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SK실트론의 사업환경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영역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믹스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당사가 투자한 업체들의 사업과 기업가치도 당초 계획 이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갈 전망입니다.

또한, 당사가 그 동안 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축적해 온 Digital Transformation 역량을 활용하여 투자회사들의 실질적인 value-up과 BM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에도 당사 포트폴리오의 가치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rebalancing 활동을 이어갈 것이지만, 거시경제 변수의 높아진 변동성을 감안하여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안정적인 재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의 제고는 당사가 지향하는 추구가치인 동시에 당사의 비즈니스모델을 규명하는 핵심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당사 본연의 활동인 투자, Value-up, Divest에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함께 측정, 관리하는 Double-Bottom Line(DBL)을 접목해서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올해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선하고 KPI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등의 실천적인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배구조

지난 몇 년간, SK주식회사는 기업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왔습니다.

2016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거버넌스 위원회가 이사회 내에 만들어졌고, 그 동안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회사의 사외이사들이 보유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사회 회의에 앞서, 모든 안건은 적절한 시점에 거버넌스 위원회에 보고되어, 사외이사 각자가 모든 안건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채택하고 사외이사 중 한 명을 주주소통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주주권익 보호와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이사회 투명성을 한 단계 진화시켰습니다.

주주환원

저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rebalancing을 통한 성장이라는 회사의 비전에 부합하는 배당정책을 주주들께 제시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고심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기존의 배당성향에 기반하는 배당정책 대신 투자 포트폴리오로부터의 배당수익을 기본으로 하되, 투자 회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 투자수익의 일부를 주주와 공유하는 새로운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18년도에 당사에서는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총 연간 배당은 전년에 비해 25%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의 기업가치 및 포트폴리오 성장을

지속하면서 주주환원 또한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K는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시현하였고, CEO로서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에게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으며, 당사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더 뛰어난 성공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저와 SK의 성장 여정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장동현

장 동 현